미시간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트럼프 선거캠프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다른 나라들은 초박빙 미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대선 선거일 예상되는 혼란

Section divider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Section divider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Section divider

트럼프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위스콘신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를 끝내야 한다.

리차드 브리폴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당시 가장 극소한 표차였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천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브리폴트 교수는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이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봤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다.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미시간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트럼프 선거캠프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다른 나라들은 초박빙 미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대선 선거일 예상되는 혼란

Section divider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Section divider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Section divider

트럼프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위스콘신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를 끝내야 한다.

리차드 브리폴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당시 가장 극소한 표차였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천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브리폴트 교수는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이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봤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다.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미시간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트럼프 선거캠프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다른 나라들은 초박빙 미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대선 선거일 예상되는 혼란

Section divider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Section divider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Section divider

트럼프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위스콘신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를 끝내야 한다.

리차드 브리폴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당시 가장 극소한 표차였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천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브리폴트 교수는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이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봤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다.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미시간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트럼프 선거캠프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다른 나라들은 초박빙 미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대선 선거일 예상되는 혼란

Section divider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Section divider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Section divider

트럼프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위스콘신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를 끝내야 한다.

리차드 브리폴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당시 가장 극소한 표차였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천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브리폴트 교수는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이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봤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다.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미시간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트럼프 선거캠프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다른 나라들은 초박빙 미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대선 선거일 예상되는 혼란

Section divider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Section divider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Section divider

트럼프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위스콘신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를 끝내야 한다.

리차드 브리폴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당시 가장 극소한 표차였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천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브리폴트 교수는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이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봤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다.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미시간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트럼프 선거캠프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다른 나라들은 초박빙 미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대선 선거일 예상되는 혼란

Section divider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Section divider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Section divider

트럼프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위스콘신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를 끝내야 한다.

리차드 브리폴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당시 가장 극소한 표차였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천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브리폴트 교수는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이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봤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다.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미시간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트럼프 선거캠프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다른 나라들은 초박빙 미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대선 선거일 예상되는 혼란

Section divider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Section divider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Section divider

트럼프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위스콘신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를 끝내야 한다.

리차드 브리폴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당시 가장 극소한 표차였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천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브리폴트 교수는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이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봤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다.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미시간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4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과 재검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트럼프 선거캠프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건 주에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며, 승자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다른 나라들은 초박빙 미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대선 선거일 예상되는 혼란

Section divider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Section divider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Section divider

트럼프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위스콘신

트럼프 선거캠프는 위스콘신주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목격된 점에 기반해"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재검표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주는 17일까지는 선거 개표를 끝내야 한다.

리차드 브리폴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2016년에도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가 있었는데 당시 "100표 정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검표는 투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말 그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약 1만700표 차이로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당시 가장 극소한 표차였다.

11월 4일 미시간 선관위가 비공식적으로 약 96% 정도를 집계한 가운데, 트럼프 선거캠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천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남은 표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왔기에 미국 언론과 BBC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면 개표에 포함된다. 공화당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브리폴트 교수는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바이든이 이 표들과 관계없이 그대로 승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법적소송 근거는 없다고 봤다.

집계해야 할 표가 100만 표 이상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아직 승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주 공화당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부재자 투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셰이퍼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50표가 넘는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인 다른 부재자 투표용지에 끼워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받은 표에 대해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다.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모든 투표를 계수하라고 요청하는 시위대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